

농촌희망본부 기획강좌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간디학교 양희규 교장이 생각해보는 농업의 대안적 미래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을

주최 : 희망제작소 농촌희망본부

후원 : 한국농촌공사

우리가(간디학교가) 차별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다. 사실 두서없이 농촌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다. 저는 대학원 시절 무렵에 농촌행을 결정했고 그 때가 26살 때였다. 그 일로 집에서 박해를 받았다. 그 당시 부모님께 500만원을 주시면 박달재에 가서 농사짓고 살겠다고 했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였다. 그리고 돈도 받지 못했다. 그 이후로 거의 22년 정도를 농촌에서 살고 있다. 농사를 구경하면서 살아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농촌이라는 것은 생명의 젖줄이고 우리나라 자연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처럼 아기자기한 계곡이 흐르고 산이 올망졸망한 경관은 없었다. 너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자연이라고 생각했다.

20여년 농촌에서 살면서 보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었다. 지금 어떤 상태냐고 한다면 자연양로원이라고 생각한다. 노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옆에 젊은 친구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가보면 60세이다. 제일 어린 축이 60세 정도 되시는 분이다.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분 내지 두분 정도 사시는 것 같다. 농촌의 미래는 사실 암울하다. 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자녀 교육 문제였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농촌을 떠난다. 그래야 6학년 때 중학교를 도시에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시골을 탈출하려고 한다. 금산군을 보니 군청 직원들이 90%, 10명 중에 9명이 한 시간 거리인 대전에서 출퇴근한다. 본인만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지역민이 아닌 도시민인 것이다. 금산군 같은 곳은 전국에서 자립도가 거의 제일 높은 군이다. 산청군 공무원들도 진주시에서 출퇴근한다. 금산군에서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인삼장사를 하고 조금 돈을 벌면 집을 대전에 사게 된다. 장사하기 위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간다.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피씨방 등 장사를 하시는 사람들)도 도시로 이주하기 원한다. 떠나는 농촌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농촌은 자연 양로원이 되고 말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릎팍과 손목 등에 연골이 없어질 정도로 노동을 많이 했다. 엄청난 고통, 날씨가 조금만 나쁘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곳이 농촌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농촌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런 농촌을 보면 참 고민이 많이 된다.

아이들 하나하나 교육을 하다보니까 파문혀서 살지만 이런 강연을 맡고 농촌에 대해 이야기하면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 좀 어려움은 있었다. 앞으로 농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려면 교육, 경제, 문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일 수록 도시지향적인 마음이 깊다. 본인은 농촌에 살지만 자녀들은 도시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시골학교는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문을 닫고 버스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교육청 버스를 타고 통폐합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상한 방법을 쓰고 있다. 도시의 유명 강사들을 모셔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합숙을 시킨다. 이것보다 더 심한 사례는 기발한데 고등학교에 적은 두고 있지만, 서울의 학원에 보내놓고 있다. 시골 지자체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시골에 명문이 있어야만 도시에서 농촌에 유학오게 만들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지에 보면 농약값도 안 되는 상황에서 팔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다. 유통업자들은 담합이 되어있다. 생산 이후에 유통이라든지 또 가공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결국 씨앗 값과 품도 나오지 않아서 절망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셋째는 문화인데 시골에 돌아왔던 많은 분들도 문화적인 것을 충족 못시키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싶고 배우고 싶기도 한데 문화적 충족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과거에는 농촌문화라는 것이 있었지만, 젊은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즐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겨울에 농촌에서 유일한 여가문화는 술 마시는 것이다. 이장님들은 코가 빨갛다.

최근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촌정책을 보니 돈 되는 농업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서 겨우겨우 풀칠을 하는 정책에서 과감하게 농업과 수산업을 가공하는 2차 산업과 판매하는 3차 산업으

로 도입되는 농촌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다. 아마 유통을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다. 지역에 시군 단위에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생산자들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만들고 품목별로 국가대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썬키스트와 같은 대규모 농업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임대형 전원주택 단지를 100세대에서 300세대 설립하여 농어촌 뉴타운 설립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립하고 전문 경영인 농업 CEO 재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수 더 떠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세우라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원하는 원치 않은 기업형으로 가게 될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고 바꾸고 싶지 않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학교를 세우고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저희가 해온 일과 비슷한 일이라는 것이다.

저희가 한 일을 소개하겠다. 이것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소개하겠다. 저희가 우선 한일은 자녀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니 학교를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95년도에 산청 산기슭에 부친의 돈을 빌려서 땅을 샀다. 시골에서 견디는 방법은 간디를 붙잡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간디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1904년에 간디 선생이 농장을 만들면서 톨스토이 농장이라고 붙였다. 저는 간디와 성향상 안 맞지만 간디라고 이름을 지었다. 녹색평론에 학교를 빨리 하자고 글을 냈더니 100명이 다녀갔고 그 중 10명이 같이 하기로 했다. 어둠을 한탄하기 보다는 촛불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고 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되면 교육에 대해 공부를 했다. 저희가 4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엔 1개 더 운영하여 5개의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학교를 많이 세울 생각이 없었다. 이건 역사적인 과정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다. 98년도에 특성화 학교법에 의해 인가를 받게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현하면서 간디학교가 유명해졌다. 2001년도 학생들이 몰려서 20대 1의 경쟁률이 되었다. 탈락한 학생중 열성적인 학부모들 7가정이 나무 밑에서라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셨다. 학교 건물없이 5년간 유랑 생활을 했다. 제가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2007년도에 금산에 자리를 잡고 생태마을로 자리잡으면서 지금은 유럽풍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 2002년도에 제천 간디중학교가 생겼는데 산청에서 탄압을 받아서 떠나게 되어 학교가 두 개가 생기게 되었다. 중학교가 충북 제천으로

떠나게 되면서 학교가 떠나니 섭섭하다고 하여 중학교가 산청에 다시 생기게 되었다. 산청의 고등학교는 특성화 학교로 인정을 받고 학생이 120명 교직원이 25명이다. 금산에 있는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생이 80명이다. 제천에는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학생 100명 교직원 20명이다.

저희들이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시골에 학교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교사였다. 좋은 교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교사 1세대는 다 운동권 출신이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온갖 운동원들이 모여있었다. 신념은 차있지만 대화가 되지 않았다. 제가 3년간 교사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학교하면 망하겠다고 생각했다. 학교라는 것이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서 3년만에 교장직을 사임하고 교사연수원을 만들어 2001년부터 교사 교육을 했는데 그 출신들이 40명이 수료해서 17명이 배출되어 재직중이고 2005년에는 간디교사 대학원으로 나누어 기초과정과 자격과정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중이다. 자격과정에서는 교육철학, 대안교육, 전공, 부전공을 하고 2학기 때는 교사 연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연수까지 간다.

10여년 대안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어려운 것이 리더 부분이다. 고심하다가 간디학교를 비롯해서 대안교육센터, 하자 센터, 공동교육 연구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시장학교에서 아이디어를 열어 교장학교를 열었다. 1회 때는 현재 대안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학교 교육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학부모학교라고 해서 한달에 네 번씩 간디학교에서 모여서 하고 있다.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에서 학교 컨설팅을 하고 있다.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은 생태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99년도에 호주에 있는 크리스탈 워터스라는 세계적인 에코빌리지, 생태마을에 견학을 갔고 디자인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다. 땅은 무지 넓고 70만평 정도 되는 곳이다.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마을이며 95년도에 유엔에서 미래 거주지 상을 받았다. 거기 가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 디자인한 생태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기존에 있는 지역 사회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 만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속내가 있다. 농촌에 들어가서 땅을 사는 것이 어렵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문화가 섞이면 힘들더라. 자칫하면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뜻으로 농촌에 들어가지만 1년 정도 지나면 농촌사회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농촌에는 사생활이 없다. 낮이고 밤이고 들어온다. 조그마한 일도 마을 전체에 알려진다. 농촌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학교 교사들이 빈집들을 빌려서 수리를 해서 들어가 살았다. 그러나

집을 깨끗이 수리해서 살려고 하면 나가라고 한다. 탐이 나기 때문이다. 저희도 고생을 좀 했다. 95~98까지 4년을 살다보니 농촌 지역사회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라리 싼 땅을 사서 우리식의 마을을 만들자고 한 것이다. 우리 돈으로는 농촌에서 살 수 없어서 새로 임야를 사서 우리식으로 살게 된 것이다.

산청 안솔기마을은 동호인 마을의 성격으로 18세대를 모집해서 2,000만원을 모아서 땅값을 치루고 남은 것으로 건물을 지었다. 지금은 마을이 완성이 되었고 19세대가 거주를 하고 인위적으로 디자인한 인공적인 생태마을이다. 그 이후로 3KM 떨어진 산청 간디중학교를 만들면서 작은 산청 둔철생태마을을 만들었다. 이전에 화전민이 살던 마을이다. 좁은 땅 밖에 구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김도현씨가 살고 있는 산청 갈전숲속마을은 산청 간디중학교와 연계되었는데 2~3만평의 부지를 구입해서 40세대 마을을 조성중이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금산숲속마을이 있는데 현재 40세대 마을 조성중이나 지금 10세대가 살고 있다. 산청 갈전숲속마을과 금산숲속마을은 사회적기업형태로 조금 이윤을 내어 학교운영에 쓰고 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고민하였는데 대안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것이 학교에 연관된 작업장을 운영했고 학교교육에 참여해서 전임강사나 요리강사, 집에서 원예나 제빵 강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한가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민자 기숙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2층에는 부부가 살고 1층에는 학생들이 있게 했다. 밥은 학교에서 먹게 하는 것이다.

저희가 대안적인 비즈니스를 한 것이 유정란 사업이고 몇 가정이 성공을 했다. 안솔기 마을에 계신 어떤 분은 시멘트 회사에 있던 분인데 유정란 사업을 시작하여 한 달에 500만원씩 벌고 계신다. 정말 좋은 약초와 곡식을 먹인다. 학교에 납품하고 진주에도 300가구에 납품을 한다. 너무 귀한 비즈니스이다.

건축일도 배워서 옆집 사람 집을 지어주기도 한다. 집을 지어주면서 사시는 분도 있다. 금산 간디학교에 있는 카페 운영지기는 제 아내이다.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에서 행복이 느

껴지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결국은 농촌이라는 것은 도시의 생명의 젖줄이고 생명력이 있는 곳이 탄생이 되어야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을 것이다. 요즘 슬로우 푸드나 슬로우 시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추구하는 규모화나 대기업 위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저희 같은 시골에 오래 살면서 정부와 대화도 하면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더 생명력있게 되도록 해야 한다.

스페인에 벤포스터 어린이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실바 신부님이 5명의 어린이로 시작한 곳이다. 그곳에는 가죽공예, 목공예, 도자기 공장, 자동차 정비소, 주유소, 호텔과 식당, 서커스단 등을 만들었다. 고아와 같은 아이들에게 서커스를 정식으로 가르쳐서 먹고 살았다. 공화국에 있는 아이들이 자동차를 완전히 뜯었다가 붙이는 것이 일어났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보았다. 10대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 열정을 넣어서 장인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스낵바, 베이커리, 대안생리대공장, 천연비누공장, 음악카페, 출판사 및 미디어 회사, 도자기 공장, 유기농 식품공장, 게스트 하우스 등이다. 유기농 식품공장이 필요하다. 읍내에 팔 수 있는 반찬공장을 했으면 좋겠다. 기특하게도 농촌어린이들이 있는데 농촌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여행사를 아이들과 창업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한다. 대안적인 수학여행 기획여행사를 만들려고 한다. 올 가을부터 한 수업과목이 여행사 창업이라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목공예 공장, 식품가공 공장을 만들어 지역민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여 지역에서 먹고 가까운 곳에 팔고자 한다. 슬로우 푸드 스쿨도 운영할 생각이다. 잼이라든지 매실 엑기스라든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 운영비로 만들려고 한다.

생태마을을 네 개를 만들어 보니까 관심이 생겼고 자연건축 및 생태마을 전문회사를 열려고 하고 지속가능한 학교(주말, 방학)도 하려고 하고 대체에너지 회사도 운영하려고 한다. 저희가 학교는 운영하지만, 좀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회사도 하려고 한다. 필리핀 네브레스(?) 섬에 가서 아이들이 한학기동안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분류했다.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연친화형 틈새시장을 모델링 하고 싶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지원

농업회사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었으면 한다. 유통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유통가공, 마케팅을 배우게 될 것이다. 농촌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봤는데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다. 결론은 정부가 이 사업을 해도 뛰어 들 건축회사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마인드를 가진 회사가 아니면 공모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나 저희 같은 곳을 통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고급인력들이 있다.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해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0년동안 저희는 마을을 만들었고 학교를 만들어 왔다. 앞으로 10년동안 저희가 노력할 부분은 대안적 기업이다. 이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허물어질 지도 모른다. 먹고 사는 문제를 잘 닦아놓고 문화가 번성하는 것을 꿈꿔보겠다. 그리고 도시민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고향마을을 만들고 싶다. 약간은 몽상이지만 그렇다.

김도현 선생님

집을 직접 지었다. 다양한 집들이 있다. 학교 기숙사인데 25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홈스테이 형태의 민자스테이를 하고 있다.

질문 시간

김신형 : 개인적으로 아쉽다. 진작에 선생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받은 느낌은 동호회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체 마을로서의 유형이랄까 목표라는 것이 생태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양희규 교장 : 규칙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발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 공동체와 전원주택의 중간정도로 가고 있다.

김도현 : 저희가 마을을 만들면서 보니까 강한 공동체는 오래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전통마을을 보면 강한 공동체를 갖고 있지 않더라.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생태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생태 수도화 하고 있다. 규약을 미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마을을 만들고 몇 년이 지나면 규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정란 같은 경우도 유정란 생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을 전체가 네 다섯가정이 추진하고 있다.

계원조형예술대학 최정심 교수 : 2003년도 교육부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대학이 어떻게 지역과 어떻게 함께 발전할 것인가 고민했었다. 단과대를 중심으로 가는 대학인데 지역이라는 관점과 창의력 교육,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의 미래 디자인을 키워드로 하여 리서치를 하던 중에 지리산 일대의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2003년도에 방문했었는데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발전이 된 것을 알고 싶다. 굉장히 놀라웠고 학교에 매력을 느꼈는데 오전에 수업을 하고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 의식주를 교과과정에 중심으로 두고 있었다. 두 번째 그릇이나 도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아이들이 만든 정자나 도자기라든가 건축수업에서의 정자들은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이 곳의 학생들을 받고 싶었다. 감동을 받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자 했으나 진행은 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열거했는데 충분히 차별화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초기에 운동권 중심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창의성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끄집어내는 과정인데 패턴화된 상태로 교사가 양성되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

양희규 : 잘 안되고 있다.(웃음) 제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최대의 약점이 조직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약하다. 저 같은 사람은 idea person이지 조직은 못한다. 학교를 떠날 생각까지 했었다. 창의성 부분은 아이들은 엄청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놀라운 아이들이 있다.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을 조직화해서 하려고 하면 교사 집단이 아닌 여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마을에서 나와야 한다. 전임교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늘고 있다. 교육집단이라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서 그것을 하려면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야 한다.

김도현 : 우선적으로 마을이 정착되어야 한다. 지금 나머지 마을들은 아직 정착되는 과정이다.

최정심 교수 : 대안학교의 아이들은 창의력이 뛰어나다. 이 아이들의 창의력이 퇴화

되지 않고 오면 좋을 것 같다.

김미란 팀장 : 지금 여기 보시면 대안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에 대한 것이 계획인지 아니면 진행이 된 것인지? 교육자 집단이 아닌 마을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커리큘럼화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만약에 대안적인 마을이 조성되면 마을에 가서 섬처럼 고립될 수도 있는데 다른 마을과의 소통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양희규 : 학부모 교육을 계속 해왔다. 40세대가 엄청난 자원이다. 선배 학부모회, 후배 학부모회가 엄청난 자원이 되어있다. 마을의 구성원들중 졸업생 학부모들이 많다. 학부모 학교는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다음주부터 32명을 교육시킬 것이다.

이웃마을과의 소통문제는 기존의 지역사회와의 배타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1차 과제는 정착하는 것이다. 정착이 안되고서는 힘든 문제이다. 다만 지역의 분들과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꼭 지역의 한꼭지가 되도록 참여하고 있다.

최혜자 (해피시니어) : 서구에서 대안적이라고 할 때 7, 80년에는 과학화된 이 세계에서 전통적인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찾는다. 선생님의 이야기에서는 마을만들기, 학교만들기와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 때 내 고향을 만든다고 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존재방식과 엮이지 않고 주민들이 마을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 보고 싶다. 전통적인 삶의 존재방식, 지속성이 중요한데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은지 알고 싶다. 또 하나 질문은 농촌의 촌락에서 임야의 활용, 삼림의 활용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고 싶다. (홍수 문제라든지 가계 수입이라든지)

양희규 : 세계의 생태 공동체들이 별종들이 모인 곳으로 시작한 곳이 많다. 대개 20~30년이 걸려야 이질성이 동화되어서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않나 싶다. 우리는 원리주의자는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가야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과거에 오래된 것을 지금 살리는 것인데 지역은 안한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한다기 보다는 더 멀리 오래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전통미각을 살리는 우리의 좋은 것들을 되살려서 문화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입맛 자체가 달라져 있다. 어떤 부분은 절충하여야 한다. 임야 부분

은 관심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야가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 일차리 창출 정도지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는다. 시골에 화목 보일러용 땃감 전문회사들이 생겼다. 공공근로하면 나무가 나오고 이것을 잘라서 땃감을 공급하고 있다.

김도현 : 지역은 다 관행농법을 하신다. 저희가 유기농 한다고 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본다. 땅을 빌리려고 하면 땅 버린다는 것이다. 임야 같은 경우는 국유림이 많아서 개인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약초 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존 지역 주민들하고 하기 힘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중에 있다.

김완배 : 임야 활용과 관련해서 두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 산더덕을 100만평을 하는 분이 있다. 자기 산은 한평도 없다. 산에 유심히 보시면 나무와 더덕이 같이 갈 수 있다. 산에 나무가 있으면 벌목할 때가 되면 벌목하기 전에 산더덕 씨를 뿌린다. 산더덕씨를 보면 낙하산처럼 훌훌 날라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싹이 나고 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해 진다. 약간의 그늘이 지면서 더덕이 양지 식물이다. 산이 있으면 양지 쪽에다가 더덕을 심고 음지쪽에 약초를 심는다. 밭에서 키우는 밭더덕은 농약을 뿌리게 된다. 산의 경우는 농약을 안뿌리고 천연의 유기식품이 된다. 산청 같은 곳은 약초특구 위원을 하게 되었는데 농림부 사이트에 가면 신지식농업인 사이트가 있는데 양평군의 용문산 더덕이 있는데 임선생인데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니 지도를 해주고 있다. 예전에 고성에 불이 났는데 전화가 왔다. 더덕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기물질이 너무 많으니 최상의 더덕이 나오고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것이다. 고성 군부대 뒷산에 뿌리고 왔다.

다음은 일본 농업을 조사하면서 본 사례인데 나가노현을 보면 산이 많다. 그 골짜기에 산촌부락이 있는데 밭 때기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오야끼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오야끼 마을이 간단히 소개드리면 찢어지게 가난한 촌이고 계곡 계곡별로 마을이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 출신 7사람이 너무 가난하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성공한 다음에 모이자고 약속을 했다. 20년 후에 각자 정비회사, 식품회사 등 7명이 모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산나물, 밭에서 키울 수 있는 밀, 떡 같은 것인데 채소와 닭고기를 넣어서 만두식으로 만들어 화덕에 굽는 오야키인데 그것을 개발해서 조그맣게 회사를 차려서 연세 많은 분들에게 생산하게 해서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팔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찌개모노라고 절여먹는 것을 개발했다. 지금 나온 상품이 20여가지 이상이다. 그것이 알려지니까 찾아오는 관광객이 생기더라. 노인들이 직접 굽는 것, 주무실 수 있는 숙소도 있어서 상당히 마을을 살렸다. 사실 점점 가면 원래 어렸을 때 먹던 것을 그리워 할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겠나

한다.

질문 : 대안학교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다. 그러나 사실 대안학교의 생태학교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대중적인 사회운동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그것대로 성과로 놓아두고 현실적으로 10년 후에는 마을이 빌 것인데 기존 마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은퇴자들은 점차 연령층이 낮아질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가도록 하면 좋겠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전원에 가서 명상을 하고 아름다운 에코 마을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은 없는지?

양희규 : 지금 엉뚱하게 개조한 시골 주택이 도시민들에게 쉽지 않다. 기존 마을을 복원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기존 집에 살기는 힘들다. 그러나 제가 사업가가 아니고 생각만 많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힘들다.

주위 금산에도 300~500세대를 계획하여 시도를 했다. 그러나 잘 안되고 있다. 사업이 거의 부도라고 보시면 된다. 생각만큼 은퇴자 마을이 잘 안되고 있다. 도시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만들지 않으면 도시의 노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질문 : 항상 불안하고 무엇인가 쫓기고 하는데 농촌에 가면 자기가 주류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제시해야 한다. 사회교육이 되어야 하면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양 교장님은 그런 소명이 있으니 생각한다.

양희규 : 제가 말씀은 안드렸지만, 정운천 장관의 100~300세대라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4세대로서는 힘들다. 의료혜택과 문화혜택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은 100~300세대 규모에서 이 마을을 만들면 된다.

질문자 : 은퇴자도 의사선생님을 모시면 된다.

양희규 : 물리치료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김완배 교수 : 참고로 경실련 활동하던 서경석 목사가 경기도청과 양평과 가평에 은퇴자를 위한 규모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인 것은 경기지사와 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산더덕 하시는 분은 조남상씨이다. 이태리에 가니 백화주라는

것을 팔더라. 야생화 중에서 100개의 꽃을 따서 술을 만들었더라. 먹을 수 있는 꽃이나 약초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좋겠다.

김영림 회장 : 저는 개인적으로 91년도에 농업을 기업화하려고 들어갔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아이들 교육하는데 이사를 가지 않더라. 풀무농업기술학교를 아이들을 보냈다. 지금도 후원하고 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에 수시로 들어갔다. 지금 더 적극적으로 풀무학교는 기존학교에서 외연을 넓혀서 마을이 유기농화 되었는데 주제를 갖고갔는데 어려움은 너무나 많았다. 저는 서울 살다가 흥천에 가면 배타적이고 어렵다. 지금 시골에 진입하는 법, 생활하는 법, 교육하는 법을 18년째 경험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 초유의 교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생태적인 삶까지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 있는데 많은 커뮤니티 형성하고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쌓아온 것인데 매뉴얼화되고 시스템화 되어야 개인적인 수고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학교로 이사가간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학교 여러군데 참여했다는 것이 대단히 용기있고 선험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이 배타적인 것은 너무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너무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간디학교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좀 더 체계화되고 한국의 메뉴를 만들면 된다.

양희규 : 갈전 마을 주민들은 30대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내려왔다. 제가 시작은 했지만, 옆에서 고민을 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리서치 할 겸 보내서 이곳을 documentation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낮시간에는 시간이 없다. 그 부탁을 드리려고 온 것이다. 우리가 고립적으로 고투하고 있는데 리서치 하는 사람을 보내서 확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옆에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매뉴얼화하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현장에 있으면 그 기록을 하기 힘들다. 농사 지으면서 농사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파견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

김신형 : 전원주택 동호회 수준을 벗어나서 구성원이 전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모아서 삶의 여러 가지 분들을 모아서 입주시켜면 된다고 본다. 저는 강화에서 살다보니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섬처럼 떠있다. 예를 들어 면이나 리들이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필요할 것이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

양희규 : 저희가 필요한 것은 문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절기를 따라 축제를 하고 문화적인 행사도 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마을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곳곳에 있는 좋은 분들을 연결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대학과의 연결이다. 이타카 공동체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연결하여 고립될 수 있는 요소를 막아주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대학들이 해 줄 수 있다. 이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싶다. 적어도 1년 2년 이상 연결이 되었으면 한다.

최정심 교수 :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서 교수나 학생이 시골에 가서 같이 수업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도자기 수업인데 교수와 대학생들은 표면에 그림을 그렸다. 초등학생들은 안과 겉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였다. 창의력, 발상에 대한 것이 퇴화된 것이다. 간디학교와 마을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창의 교육에 있고 창의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모인 것이다.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이 생태마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일 것이다. 예술이나 창의성 역시 교육의 전과정이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쪽으로 양산하기 보다는 교육이 갑자기 많은 비즈니스로 퇴화될까봐 궁금했다.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버타운은 도시에 의료시설이나 문화가 많기 때문이고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있고 싶어하지 노인들과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

질문 : 처음에 결의한 10명중 몇 명이나 남으셨는지?

양희규 : 3명은 농사짓고 어떤 분은 목수, 어떤분은 다른 대안학교로 갔다.

질문자 : 작년에 죽고 싶다는 표현은 무엇 때문인지 공개하실 수 있다면 듣고 싶다.

양희규 : 저는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제가 관리를 안하면 방치된다. 한 사건은 2005년도에 중학교를 개교하고 교장을 임명했고 학교가 두동강이 났다. 절반을 데리고 나갔다. 산청에서 생태마을 사업을 했는데 제가 재정문제를 직접 감독을 못했고 뒷감당을 못했다. 통장 이름은 양희규인데 관리를 제가 안했다.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 했다. 그 이후에 다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필리핀으로 갔다. 우연히 관

리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더니 300개가 되더라. 프로젝트마다 하고 있다. 제가 관리자로서 능력이 미숙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질문자 : 전망 있습니까?

양희규 : 전망이 없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본다.

질문자 : 아토피 치료차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한국에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 자치구마저도 이 치료에 대응하고 있다. 환경만이 최상의 치료법이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데 FTA가 곧 올 것인데 3만불 시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아는 농촌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명감 아니고는 이것이 되겠는가 생각한다

양희규 : 저도 여쭙보고 싶었다. 한국에서 농촌 농업 쪽이 생산성으로 봤을 때 가능하냐는 것이다. 평당 10만원 정도 하고 3000평 하는데 3억이다. 그것을 농사짓는 것보다 은행 넣는 것이 나을 것이다. 대규모의 농업회사가 출현이나 할 수는 있을까? 정말 살펴보자는 사명감 없이 이런 지역농산물을 비싼 값에 사서 가공하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김완배 : 저는 전혀 안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요즘 우리가 2만불 턱앞에 와있는데 우리도 농산물을 골라먹는 시대가 왔다. 20KG 쌀 한가마에 46,000원 되지만, 15만원짜리 쌀을 먹는 사람을 먹는다.

까만 일본소 화우 100g에 10만원인데 일년에 60만원 짜리 한근 사먹는 것은 일도 아니다. 메론도 시즈오카가 제일 잘한다. 산지에서 4만원인데 도쿄오면 10만원 된다. 똑같은 농산물을 기존에 땅을 많이 하는 작물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한중 FTA나 한일FTA까지 될 것인데 5년후에는 관세화로 쌀이 갈 것이다. 5년 후에 전체가 개방된다. 조사하면 할수록 우리 농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농산물은 토양 조건이나 기후조건에 따라 똑같은 종자라도 다르다. 이 땅에서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 일본 식당에 가면 다이콩이다. 일본 무로는 무채나 깍두기를 만들 수 없다. 일본 무는 냄비 요리로만 먹는다. 일본에도 야끼니쿠라고 하여 3000개 먹었다. 구워서 먹는 것은 상추하고 깻잎인데 한국 깻잎을 일본에 심으니 향이 안나오더라. 이런 사례는 굉장히 허다하다. 농업이 되겠냐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농산물 종류도 수없이 많다. 쌀도 사실 경쟁력은 없지만, 기초 식량이므로 어느정도

자급력을 가져야 한다.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쪽 빼놓고는 다 가보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배는 세계에 없다. 왜 우리가 특화를 못하는가? 저도 훈장 생활을 25년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 농업이 되겠냐고 이야기한다.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을 가보면 네덜란드는 제일 높은 곳이 300M이다. 그리고 일조량도 많다. 정확히 7년 전에 네덜란드 화훼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천혜의 땅을 놀리고 있다고 하더라. 꽃이라는 것은 똑같은 품종을 써도 일조량이 더 많으면 더 잘 된다는 것이다. 어중간하니까 안된다. 과일 같은 것은 강수량이 많으면 불리하다. 품종개량하고 재배기술해서 와인만드는 회사가 200개가 넘고 세계적인 와인 컨테스트 금상 받은 사람 많다. 농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돈이 안되니까 안들어가는 것이다. 농업이 돈 되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비교하면 가능성이 있다. 땅값 비싸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정부가 출범했고 정운천 장관이 유통 쪽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질문자 : 정부시책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대단히 미흡하다.

로하스팜 대표 : 그 당시에 젊은 엄마들 인식 속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결국은 아이는 보내지 않았다. 간디학교가 그 때 보다 좋았으리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을 알고 싶었다. 지금 토론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접해오지 않았던 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양희규 : 학교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원탁회의이다. 서열이 없고 철저히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교사들이 퇴근 잘 안하는 이유가 일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엄청난 자발성과 창의성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그 다음에 저 자신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느낀 것은 저는 늘 생각은 있는데 사실은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오늘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 와서 리서치를 하고 우리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코치를 해주고 하면 좋겠다. 특히 대학 쪽이나 이런 데서 해주면 좋겠다. 정부나 대학 쪽과 연계되어서 진화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만일에 확대되었을 때 대학과 정부와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보편적이고 발전적인 모델을 하고 있다.

로하스팜 대표 :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이 체계화된든지 매뉴얼화된다고 했을 때 규격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공교육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대안

학교가 생겨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희규 : 몬테소리 같은 곳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 그 환경 속에서 학습이나 인격 형성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 써머인 등은 거의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형태로 하는 것 같다.